

노동정책연구

2004. 제4권 제1호 pp. 1~22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논문

# 일본 소비생활에 관한 패널조사(JPSC)의 소개\*

김기현\*\*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일본의 2차 분석 자료의 현황을 제시하고 특히 일본의 대표적인 패널조사인 「소비생활에 관한 패널조사(JPSC: Japanese Panel Survey on Consumers)」의 조사설계, 조사방법 및 이용방법과 제한점을 밝히고 있다. JPSC는 일본의 젊은 여성을 대표하는 패널표본 구성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씩 구성원의 수입·지출·저축, 취업활동, 가족관계, 배우자 등에 관하여 1993년부터 현재까지 추적 조사하고 있는 종단 조사(longitudinal survey)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한일간의 비교연구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일본 자료에 관한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으며 동시에 JPSC의 조사설계와 방법을 검토함으로써 국내의 패널조사에 대한 방법론적 시사점을 얻는 데 있다.

핵심용어: 패널조사, 2차 분석, 응답률, 유치조사법

투고일: 2004년 1월 5일, 심사의뢰일: 1월 19일, 심사완료일: 2월 4일

\* 본 연구는 토오호쿠대(東北大) 「사회계층과 불평등연구교육센터」의 21세기 COE 프로그램의 특별 연구 지원금을 받아 진행되었음을 밝힌다(This research was conducted under the 21st Century COE Program Special Research Grant of the Center for the Study of Social Stratification and Inequality at Tohoku University).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연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일본 가계경제연구소(家計經濟研究所)의 나가이 아키코(永井曉子) 수석연구원과 무라카미 아카네(村上あかね), 쿠키모토 신고(久木元眞吾), 미소구찌 유키(溝口由己), 사카구찌 나오후미(坂口尚文) 연구원께 감사를 드린다. 일본어 표기는 최영애·김용옥 표기법(the C.K. System)을 따랐으며 일본어 중 일본식 약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는 정자로 표기하였다.

\*\* 일본 토오호쿠대 박사후 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kihuns@kli.re.kr).

Home: +81-22-221-7471 Address: 602 COE Research Room, Center for the Study of Social Stratification and Inequality, Graduate School of Arts and Letters, Tohoku University, Aoba-ku, Kawauchi, Sendai 980-8576, JAPAN.

## I. 머리말

일본은 상대적으로 자국의 분석 자료를 외부에 잘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의 2차 분석(secondary analysis) 역시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2차 분석 현황을 비교 분석한 사토 등(佐藤博樹外, 2000)에 따르면, 1998년 일본 사회학지 『사회학평론(社會學評論)』에 발표된 논문 중 2차 자료를 사용한 분석 논문의 비중은 4%에 불과한 반면, 같은 기간 미국 사회학회지 *American Sociological Review*에 발표된 논문 중 그것은 61%로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sup>1)</sup>. 일본의 경우, 자료 공개의 제약은 다른 한편에서 발표된 저서나 논문의 도표를 수학적 공법에 근거하여 복원하는 새로운 2차 분석 방법론의 등장을 낳기도 했다<sup>2)</sup>.

물론 연구자 스스로 조사설계를 통해 직접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는 1차 분석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 없고, 학문 분야에 따라 2차 분석의 의미가 전혀 다를 수 있다. 그렇더라도 표본조사에 대한 계량 분석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 성과의 일반화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고, 연구자 스스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전국을 포괄하는 표본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2차 분석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분석 자료의 공개는 자료 제공자와 자료 이용자 간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한다. 자료 제공자 입장에서 분석 자료의 제공은 자료 제공자가 발견하지 못한 오류를 찾도록 도와줘 자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하며, 자료 이용자 입장에서 그것은 보다 손쉽게 분석할 수 있는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큰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학계나 정책 차원에서도 1차적인 자료 수집의 목적과 분석 결과와는 다른 유용한 해석과 결과들을 통해 연구의 지평을 넓힐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관련, 최근 2차 분석 자료의 제한적 공개 원칙에 대한 자성과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일본 내부에서부터 제기되고 있어 고무적이다. 토오쿄오대(東京大) 사회과학연

1) 이것은 동일 잡지에 실린 것 중 회장 취임강연문, 서평, 논평 등은 제외한 결과이다. 같은 시기 국내의 사회학지 『한국사회학』의 경우 2차 자료를 사용한 분석 논문의 비중은 43%(30편 중 13편)로 나타나고 있다.

2) 이에 대해서는 마츠다(松田光司, 2002) 참조. 참고로 일본의 수리사회학회(數理社會學會)는 학회지인 『이론과 방법(理論と方法)』 17권 1호(2003)에서 2차 분석에 관한 특집을 다루고 있다.

구소는 1998년부터 정부기관, 정부출연 및 민간연구기관, 각 대학 등 20여 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내어 국내·외 연구자에게 2차 분석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SSJDA(The Social Science Japan Data Archive) 프로젝트를 수행 중에 있다<sup>3)</sup>. 이것은 1968년부터 시행 중인 미국의 대학간 정치·사회조사 자료 제공 프로젝트인 ICPSR(the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과 1976년부터 시행 중인 유럽 프로젝트인 CESSDA(the Council of European Social Science Data Archive)와 유사한 형태의 프로젝트로 동 기관은 50여 개의 일본 전국 및 지역 조사 자료와 미국 ICPSR에서 제공하는 2차 분석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예정이다.

일본의 2차 분석 자료 중에서 패널자료 역시 북미나 유럽의 패널자료와는 달리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반면 일본 내부에서는 비교적 일찍부터 활발하게 패널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료 제공 역시 상대적으로 공개 원칙을 따르고 있다<sup>4)</sup>. SSJDA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일본 가계경제연구소(家計經濟研究所)의 「소비생활에 관한 패널조사(Japanese Panel Survey on Consumers, 消費生活に關するパネル調査, 이하 JPSC)」를 비롯하여 일본 문부과학성(文部科學省)의 과학특별추진연구로 1993년부터 추진 중인 「투표행동의 전국적·시계열적 조사연구(JES: Japanese Election Study, 投票行動の全國的·時系列的調査研究)」<sup>5)</sup>,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서 2001년부터 추진 중인 「21세기 출생아 종단조사(21世紀出生兒縱斷調査)」, 「21세기 성년자 종단조사(21世紀成年者縱斷調査)」, 토오쿄오노인총합연구소(東京老人總合研究所)에서 1987년부터 추진 중인 「고령자의 생활과 건강에 관한 장기종단조사(高齢者の生活と健康に關する長期縱斷調査)」 등이 대표적이다.

본 연구는 일본의 대표적인 패널자료 중에서 JPSC 전반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이용방법과 함께 자료의 제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일본의 대표적인 패널자료에 관한 분석을 통해 국내의 패널조사에 대한 방법론적 시사점을 얻는 데 있으며 동시에 한일간의 비교연구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국내의 연구자들에게 일본의 2차 분석 자료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기도 하다. 다행스러운 것은 다른 일본의 2차 분석 자료들과는 달리 「생활과 의식에 관한 국제비

3) 이에 대해서는 토오쿄오대 사회과학연구소의 SSJDA 영문 소개 홈페이지(<http://ssjda.iss.u-tokyo.ac.jp/en/index.html>) 참조.

4) 이에 대해서는 나카이 등(永井曉子 外, 2002)과 쿠키모토와 무라카미(久木元眞吾·村上あかね, 2003) 참조.

5) JES 자료는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의 접근이 가능하다. JES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h-web.org>) 참조.

교조사(JGSS: Japanese General Social Survey, 生活と意識に関する國際比較調査)」와 더불어 주관 기관이 외국 연구자들에게 자료를 개방하고 있으며 자료 신청 및 조사 개요, 조사 내용 등에 대한 영문 소개가 비교적 상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sup>6)</sup>. 이와 함께 JPSC를 특별히 소개하는 이유는 국내의 패널자료인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와 조사 대상이나 표본수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나 조사 항목에 있어서 유사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비교가 용이하다는 측면도 고려하였다. JPSC는 조사 명과는 달리 소비생활뿐만 아니라 개인의 직업 이력에 관한 정보, 임금 및 노동조건에 관한 정보, 직장에 관한 정보, 교육 및 직업훈련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어, 소비자학 이외에 경제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등의 연구 주제도 함께 다룰 수 있는 패널조사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먼저 JPSC의 표본 및 조사방법을 소개하고 이어서 자료의 구성 및 설문내용, 이용방법 등을 제시한 후 이 자료의 제한점과 방법론적 시사점을 밝히고자 한다.

## II. JPSC의 표본 및 조사방법

### 1. JPSC의 표본

JPSC는 전국의 젊은 일본 여성을 대표하는 패널표본 구성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씩 구성원의 수입·지출·저축, 취업활동, 가족관계, 배우자 등에 관하여 1993년부터 현재까지 추적 조사하고 있는 종단 조사(longitudinal survey)이다. JPSC는 내각부(內閣府)의 국민생활국(國民生活局)으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조사 대상은 1997년과 2003년 두 차례의 추가 표본(supplement sample)을 거쳐 2003년 현재 24세에서 44세에 이르는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3년 1차 코호트(cohort A)의 표본수는 24~34세의 여성 1,500명이며, 1997년 2차 코호트(cohort B)는 24~27세의 여성 500명, 2003년 3차 코호트(cohort C)는 24~29세의 여성 800명 등으로 표본 탈락을 고려하지 않은 총 표본수는 2,800명이다. 본 글에서는 현재 보고되고 있지 않은 2003년

6) JPSC의 영문 정보는 일본 가계경제연구소의 공식 홈페이지 중에서 영문 페이지(<http://www.kakeiken.or.jp/english/index.html>) 참조 JPSC 설문지의 경우 보고서를 통해서 일본어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코드북 역시 공식적인 이용 절차를 거친 연구자에게만 일본어로 제공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영문 버전 설문지와 코드북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표 1> JPSC의 연도별 응답자수와 회수율

(단위: 인, %)

조사 연도	Cohort A		Cohort B	
	응답자수	회수율 <sup>1)</sup>	응답자수	회수율 <sup>1)</sup>
1차 연도(1993)	1,500	41.4	-	-
2차 연도(1994)	1,422	94.3	-	-
3차 연도(1995)	1,342	94.3	-	-
4차 연도(1996)	1,298	96.0	-	-
5차 연도(1997)	1,255	96.2	500	34.3
6차 연도(1998)	1,196	95.0	442	87.0
7차 연도(1999)	1,137	94.5	412	91.7
8차 연도(2000)	1,102	96.6	386	92.9
9차 연도(2001)	1,059	95.7	366	94.3
10차 연도(2002)	1,030	97.2	343	93.7

주: 1) 회수율 = (t연도 총 응답자수 - t+1 연도에 회수한 t연도의 응답자수 - t연도에 회수한 t-1연도의 응답자수)/(t-1 연도의 총 응답자수 - t연도에 회수한 t-1 연도의 응답자수)

자료: 가계경제연구소(家計經濟研究所, 2003).

추가 표본을 제외한 2002년까지의 10년차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표 1>은 조사 연도별로 JPSC의 응답자수와 회수율을 보여주고 있다. 1966년부터 시작된 미국 노동통계국(BLS: 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의 NLS(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s)와 비교해 볼 때(Fahy, 1995), JPSC의 표본수는 1,500명으로 15년 혹은 10년 주기의 대상 집단별로 5,000 표본 이상<sup>7)</sup>을 조사한 NLS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표본수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로 1997년과 2003년에 걸쳐 추가 표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응답률(response rate)과 관련하여 통상 패널조사 보고에서 제시되는 것은 전년도 응답자 대비 당해 연도 응답률과 원표본 혹은 최초 조사연도 응답자 대비 당해 연도 응답률<sup>8)</sup> 등인데 <표 1>의 회수율은 가계경제연구소에서 전년 대비 표본이탈

7) NLS의 대상 집단별 표본수는 다음과 같다. 1966년에 시작된 노령 남성(45~59세)과 젊은 남성(14~24세)의 표본수는 각각 5,020명, 5,225명이며 1967년과 1968년에 시작된 성인 여성(30~44세)과 젊은 여성(14~24세)의 표본수는 각각 5,083명과 5,129명이다. 1979년에 시작된 NLSY(14~22세)의 표본수는 12,686명이며 NLSY 응답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Children of the NLSY의 표본수는 7,035명이다(금재호, 1998a: 13).

에서 복귀한 응답자<sup>9)</sup>를 제외한 전년도 대비 순수 응답률을 자체 집계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 수치는 패널조사의 특성상 1차 연도의 경우에 횡단적 측면에서 표본의 대표성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며 종단적 측면에서 1차 연도를 제외한 연도별 수치는 연간 표본이탈 정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곧 첫 번째는 JPSC가 전 일본의 해당 연령 여성들을 횡단면적으로 대표하는가 여부를, 두 번째는 원표본의 대표성을 인정하더라도 이후의 표본이 전 일본의 해당 연령 여성들을 대표하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먼저 전자와 관련하여 1968년에 시작된 미국의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의 첫 해 연도 회수율이 76%임을 염두에 둘 때(신동균, 1998), JPSC의 회수율(41.4%)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후술할 JPSC의 조사방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짧게 기술한다면 JPSC는 패널조사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면접조사 대신 자기기입식 조사법(유치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낮은 첫 해 연도 회수율이 표본의 대표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그 자체로 표본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실제로 JPSC 원년도의 유배우자는 1,002명(66.8%), 무배우자는 498명(33.2%)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모집단으로 사용한 1990년(平成 2年) 일본 인구센서스(國勢調査)의 24~34세의 유배우와 무배우 비율(미혼, 사별, 이별)은 판별 불가능(不詳)한 0.5%를 제외하고 각각 66.5%, 33.0%로 나타나,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사하게 일치하고 있다(家計經濟研究所, 1994: 10). 이러한 결과는 최소한 JPSC 자료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결혼 상태별 여성 분포에 있어서 무응답에 따른 편향(bias)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이어서 후자와 관련하여 PSID의 이후 차수 회수율(88.5~98.5%)과 비교해 볼 때 JPSC의 그것(94.3~97.2%)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본이탈은 패널 자료에 있어서 그 가치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JPSC의 경우 다른 패널자료와는 달리 2차 연도 진입 시점에서 표본탈락률<sup>10)</sup>이 5.7%로 비교적 심각하지 않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다른 패널조사의 경우 2차 연도 진입 시점의 표본탈락률은 10% 이상으로 매우 높은 것이 보편적<sup>11)</sup>인데 PSID의 경우 2차 연도 진입 시점에서 약 12%의 표본탈락률

8) KLIPS에서는 이를 원표본유지율이라는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방하남 외, 2002). 본 연구에서도 이를 원표본유지율로 정의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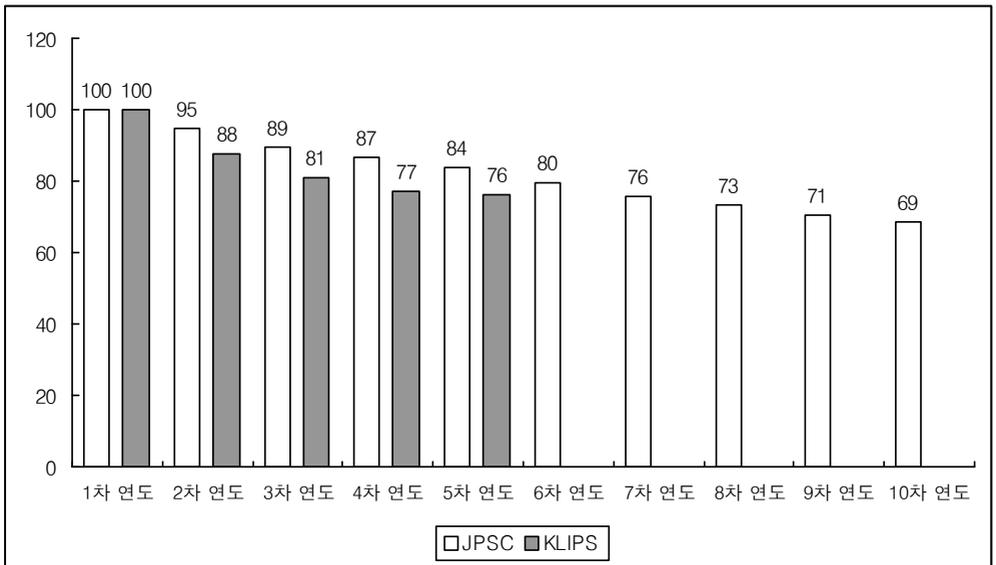
9) 각 연도별로 전년 대비 표본이탈에서 복귀한 응답자 수는 다음과 같다. 코호트 A의 경우 2차 연도는 7명, 3차 연도는 1명, 4차 연도는 9명, 5차 연도는 6명, 6차 연도는 3명, 7차 연도는 6명, 8차 연도는 4명, 9차 연도는 2명이다. 코호트 B의 경우 6차 연도는 7명, 7차 연도는 6명, 8차 연도는 3명, 9차 연도는 2명 등이다.

10) 표본탈락률은 응답률 혹은 표본유지율의 반대 개념이다.

을 보여주고 있으며 독일의 GSOEP의 경우 10%, 영국 BHPS의 경우 12%, 한국의 KLIPS의 경우 12%, 대우패널 KHPS의 경우 21%, 중앙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Youth Panel)의 경우 28.2%로 나타나고 있다<sup>12)</sup>. JPSC의 비교적 안정적인 전년도 대비 응답률은 후술할 응답자 관리와 더불어 조사원 관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JPSC는 일본 사회의 조사 관행과는 달리 응답자에게 매년 조사 성공시 현금 지급을 하고 있으며, 조사보고서와 소식지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예산의 대부분을 응답자 관리비용에 쓰고 있고, 조사원의 대다수가 10년 이상 장기근속한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JPSC와 KLIPS의 연도별 원표본유지율 비교

(단위: %)



[그림 1]은 JPSC와 KLIPS의 원표본유지율, 곧 최초 조사연도 응답자 대비 당해 연도 응답률을 연구자가 계산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것은 앞서 제시한 전년도 대비 당해 연도 응답률과는 달리 조사 차수를 거듭할수록 누적된 표본탈락의 양상을 보여주는 데 장점이 있다. JPSC의 원표본유지율은 매년 최소 2%포인트에서 최대 5%포인트씩 줄

11) 3차 연도에 접어들면 대부분의 전년도 대비 패널 응답률은 95% 이상의 안정적인 패턴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상당수의 응답자들이 두 번째 조사 시점에서 패널에 계속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12) 중앙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 자료의 높은 표본탈락률에 관해서는 이상호(2003) 참조

어드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초 조사연도로부터 10년 후인 2002년 원표본유지율은 68.7%를 보여주고 있다. 국내의 KLIPS와 비교해 볼 때 KLIPS의 5차 연도 원표본유지율이 76%인 데 비해 JPSC의 동일 기간 후 표본유지율은 83.7%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유지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개인패널 조사가 가구패널 조사에 비해 응답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두 조사 자료간에 표본유지율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함께 JPSC가 여성 표본만을 다루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남성보다는 여성의 표본유지율이 높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만, 그 추세에 있어서 두 조사자료는 큰 차이를 보여준다. 첫 번째로 JPSC는 2차 연도 진입 시점에서의 표본탈락이 매우 적은 데 비해 KLIPS는 높다. 두 번째로 그 이후 차수의 진행 상황을 보면 KLIPS는 점차 표본탈락률이 빠른 속도로 감소(7%포인트→4%포인트→1%포인트)하고 있는 데 비해서 JPSC의 그것은 4차 연도를 기점으로 감소세에서 증가세(6→2→3→4)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만약 KLIPS가 1% 미만의 낮은 표본탈락률을 6차 연도 이후 계속 보여준다면 8차 연도 시점에서는 동일한 표본유지율을 보여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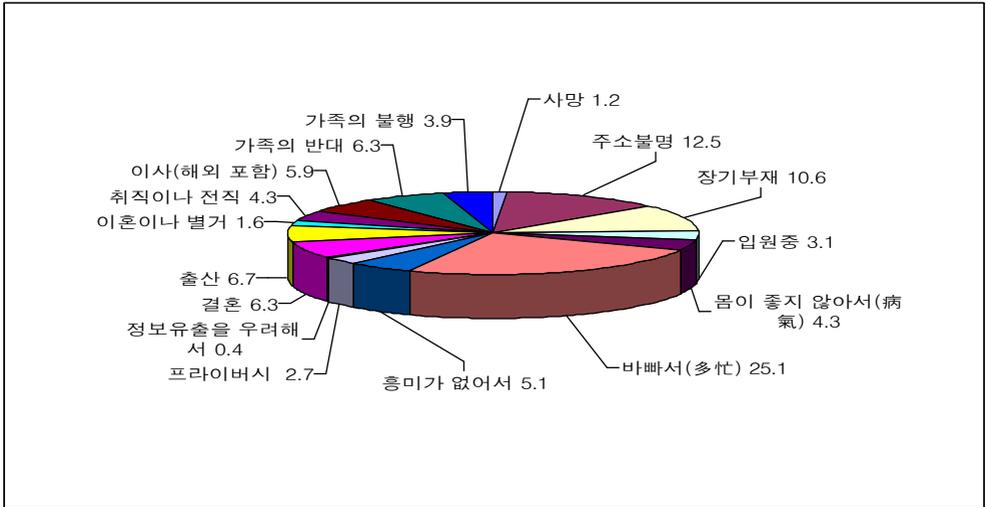
한편, 미국 가구패널인 PSID의 경우 개인 응답자 기준으로 최초 조사(1968년)로부터 10년 후 조사(1977년)의 원표본유지율은 70%로 나타나고 있다<sup>13)</sup>. JPSC와 동일한 개인패널인 미국 NLSY79의 경우 1988년 조사의 원표본유지율은 79.9%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JPSC의 원표본유지율은 다른 조사에 비해 매우 높지도, 그렇다고 매우 낮지도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는 코호트 A의 표본탈락자 471명의 표본탈락 및 조사 거부 이유를 지난 10년간의 평균치로 제시한 것이다. “너무 바빠서”라는 응답이 25.1%로 가장 높고, 이어서 주소 불명(12.5%), 장기부재(10.6%) 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로 표본탈락 이유를 살펴보면, 최초 조사연도(1993)의 경우 “너무 바빠서”가 51.2%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장기 부재가 18.6%, 가족의 반대가 14.0%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최근인 코호트 A의 10차 연도(2002) 조사의 경우 주된 탈락 이유는 해외를 포함한 이사 추적 불가가 27.3%로 가장 높게 나왔고, 몸이 좋지 않아서가 18.2%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13) 사망자를 표본탈락으로 해석하지 않을 경우 PSID의 원표본유지율은 73%이다.

(그림 2) JPSC 응답자의 표본탈락 이유(Cohort A)

(단위: %)



자료: 무라카미(村上あかね, 2003).

## 2. 표본추출방법

JPSC의 표본추출방법은 코호트 A와 B 구분없이 동일하게 2단계 층화무작위추출법(Stratified Random Sampling)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1차 추출단위로서 표본조사구의 설정은 표본틀(sampling frame)로 일본 인구센서스(國勢調査, Population Census)<sup>14)</sup>의 1990년(平成 2年)과 1995년(平成 7年) 조사시 설정한 조사구를 사용하였다. 표본조사구 추출을 위한 조사구 명부는 전국을 홋카이도(北海道), 토오호쿠(東北), 칸토오(關東), 추우부(中部), 킨키(近畿), 추우고쿠(中國), 시코쿠(四國), 큐우슈우(九州) 등 8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구역 내에서는 인구 규모에 따라서 2차 추출단위로서 13개 대도시(大都市)와 그 외의 도시(都市), 정과 촌(町村)으로 구분하였고 각 도시의 인구규모별로 연령구성 및 배우자 관계<sup>15)</sup>를 고려하여 1,500의 표본수를 비례 배분하

14) 일본의 인구센서스는 대규모 조사(大規模 調査)와 간이조사(簡易 調査)로 구분된다. 두 조사의 중요한 차이는 질문하는 문항수가 다르다는 점이다. 대규모 조사(1920~2000년)는 인구의 기본적인 특성과 경제적 특성 외에 주택, 국제적 인구이동과 교육 등 다양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으나 간이조사(1925~1995년)는 이름, 성별, 나이, 혼인상태 등 기본적인 인구학적 및 경제적 특성과 주택에 관한 질문만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 인구센서스에 관해서는 총무성(總務省) 통계국(統計局) 홈페이지(<http://www.stat.go.jp>) 참조.

15) 코호트 A의 경우 1992년 3월 31일 현재 24~34세의 연령별, 배우자관계(유배우, 무배우)별 인구

였다.

조사지점(調査地點, 인구센서스의 조사구를 의미)의 추출수는 1개의 조사지점별 표본수가 12명이 되도록 각층에 할당된 표본수로부터 산출하여 결정하였다. 조사지점의 추출은 층내에서 추출지점수가 2지점 이상 할당되도록 하였으며 각층 내의 추출단위 수에 비례하여 표본의 크기를 배분하는 비례배분법으로 표본 규모만큼 추출하였다. 이때 추출간격(抽出間隔)은 층내의 조사구수를 층내의 추출조사지점수로 나눈값으로 산출하였다.

추출된 각층 내의 시와 정과 촌의 배열순서는 인구센서스 자료의 「도도부현·시구정촌 코드표(都道府縣・市町町村コード表)」의 배열 순서를 그대로 따랐다. 추출조사지점내의 대상자의 추출은 조사지점의 주소(町・丁目・街區・番地 등을 지정)에 따라 주민기본대장(住民基本台帳)을 사용하여 등간격추출법(等間隔抽出法)으로 추출하였다. <표 2>는 이상의 작업을 통해 얻게 된 표본수, 조사지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표 2> JPSC의 지역별 추정모집단수, 표본수 및 조사지점수

조사 지역	Cohort A		Cohort B	
	모집단수	표본수(지점수)	모집단수	표본수(지점수)
홋카이도(北海道)	778,910	72( 6)	834,561	22( 6)
토오호쿠(東北)	1,294,567	108( 9)	1,286,409	33( 9)
칸토오(關東)	5,909,380	516( 43)	7,066,140	184( 43)
츠히부(中部)	3,100,306	276( 23)	3,455,805	90( 23)
킨키(近畿)	2,807,227	240( 20)	3,282,741	85( 20)
츠히고쿠(中國)	957,742	84( 7)	998,067	23( 7)
시코쿠(四國)	518,332	48( 4)	527,796	14( 4)
큐우슈우(九州)	1,927,061	156( 13)	1,962,942	49( 13)
전 체	17,293,523	1,500(125)	19,414,461	500(125)

자료 : 가계경제연구소(家計經濟研究所, 2003).

수를, 코호트 B의 경우 1996년 3월 31일 현재 24~27세 연령별, 배우관계별 인구수와 무배우자의 단독 세대수를 고려하였다. 코호트 B의 경우 1996년 3월 31일 현재의 동일 인구수들을 고려하였다.

### 3. 실사 및 조사방법

JPSC의 조사 시기는 매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달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가계경제연구소의 실무진들과 외부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소비생활에 관한 패널조사연구회(消費生活に關するパネル調査研究會)’에서 설문지의 구성, 조사설계, 자료 분석 및 관리 등을 전담하고, 실사의 진행은 민간전문조사업체인 중앙조사사(中央調査社)에 용역 의뢰를 하고 있다<sup>16)</sup>.

응답자에 대한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응답자에게 연구에 관해 설명한 후 응답자가 완성하도록 남겨 두고 나중에 조사원이 찾아가는 유치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우편조사(mail survey)와 더불어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의 전형적인 예에 해당하는데, 이 기법은 다른 조사방법에 비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넓은 지역을 조사하는 데 용이하고 접촉시간에 따른 비확률오차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bbie, 2001). 이와 함께 이 조사기법은 답변하기 곤란한 설문문항에 대해서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KLIPS의 경우도 면접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심야 귀가 등의 이유로 조사원이 응답자를 만나기 어려운 경우, 개인용 설문지에 한해서 유치조사법을 병행하고 있다.

반면, 이 기법은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Bourque & Fielder, 1995: 9-21). 첫 번째는 면접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낮기 때문에 대표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두 번째는 설문문항이 복잡하거나 설문 구성상에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이 포함될 경우 응답이 누락되거나 대충 응답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세 번째는 가장 치명적인 것으로 표본 응답자가 실제로 응답했는가를 통제하기 어렵다. 곧, 대리 응답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JPSC는 두 가지의 대응책을 활용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응답 오류를 줄이기 위해 3단계의 응답 검수를 통해 누락되거나 잘못 응답된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다. 1차로 조사원의 검수가 이루어지고 2차로 중앙조사사에서 응답 오류를 검토하고 3차로 가계경제연구소의 실무진들이 최종적인 검수를 진행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발견된 응답 오류는 추가로 응답자에게 전화 확인절차를 거쳐 최종 수정하게 된다. 두 번째는 응답률과 표본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응답자에 대한 사례를 중시하는 것이다.

16) 연구회는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계경제연구소의 실무진은 6명(사무이사 1인, 수석연구원 1인, 연구원 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해의 순수 조사 예산은 약 50,000,000엔이며 표본 탈락에 따른 응답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조사 예산은 매년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JPSC의 경우 일본 내의 다른 설문조사의 일반적인 관행과는 달리 1차 연도부터 현재 까지 응답자에게 한화로 약 5만원에 상당하는 5,000엔의 사례금을 직접 제공<sup>17)</sup>하고 있으며, 관련 보도기사 신문 스크랩을 담은 소식지를 비롯하여 연도별 발간보고서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 Ⅲ. JPSC의 구성 및 설문 내용

<표 3>은 JPSC의 설문지 및 자료의 구성과 설문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JPSC의 설문지는 코호트 A의 1차 연도와 코호트 B의 5차 연도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① 유배우(有配偶), ② 무배우(無配偶), ③ 신혼(新婚)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코호트의 첫째 연도 설문지에는 신혼 설문지가 빠져 있다. 유배우 설문지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응답하게 되며, 무배우 설문지는 미혼이거나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배우자를 잃은 여성이 응답하게 된다. 신혼 설문지는 지난 조사 이전에 결혼하지 않았으나 지난 조사 이후 1년간 새롭게 결혼한 여성이 응답하게 된다.

제공되는 JPSC 자료의 구성은 설문지의 구성과는 달리 결혼상태별로 데이터 세트(data set)가 구별되지 않고 결혼상태에 관한 판별변수(변수명: Q1)를 제공하여 응답자의 결혼상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JPSC의 데이터 세트는 매 연도별로 동일하게 다섯 개의 데이터 세트로 구성되며, 모든 데이터 세트에는 응답자 고유번호(변수명: ID)와 관리번호(변수명: REC), 그리고 패널 조사연도 번호(변수명: PANEL) 등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첫 번째 세트는 조사의 기본이 되는 가족 구성 및 가족 구성원의 변동에 관한 정보와 본인과 배우자의 직업생활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세트는 가족과 관련된 정보로 비교적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진 가계(家計)와 관련하여 가구수입, 지출, 자산, 세금, 저축 및 대출 관련 정보들과, 거주하는 주택 관련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 세 번째 세트는 생활시간에 관한 정보와 생활만족도, 소장하고 있는 가구 및 가전제품 목록에 관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 네 번째 세트는 부모에 관한 정보와 결혼 및 부부관계, 친구관계, 취미·오락활동, 생활의식 등에 관한 정보들이

17) 응답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패널조사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금제호(1998b: 28~29)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0~20달러 가량의 현금 지급이 일반화 되어 있으나 유럽은 유사한 금액의 선물 지급이 보편화되어 있다. 한편, KLIPS의 경우 4차 연도(2001)부터 응답자에게 30,000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함되어 있다. 다섯 번째 세트는 본인과 배우자의 이력과 거주력 등과 신혼 설문지에서 조사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JPSC의 설문 내용은 질문 순서나 자료 구성과는 무관하게 대략 A 가족과 관련된 질문, B 본인에 대한 질문, C 배우자에 대한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패널 자료의 특성과 관련하여 변화하지 않는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질문은 주로 최초 연도에 질문이 이루어졌으며, 가족 구성과 같이 연도에 따라 변화하는 질문은 계속 질문이 이루어졌고 매년 추가적으로 질문이 포함되거나 삭제되었다.

〈표 3〉 JPSC의 설문지의 구성 및 내용

설문 내용		설문지 구성			Data Set
		유배우	무배우1)	신혼	
A 가족	가족구성(家族構成)	○	○		1st Set
	주택(住宅)	○	○		2nd Set
	가계(家計)	○	○		2nd Set
	가구 및 가전제품(家具·電 製品)	○	○		3rd Set
	부부관계(夫婦關係)	○			4th Set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兩親)	○	△		4th Set
	양가 부모와의 관계(親との關係)	○	△		4th Set
	자녀(子女)	○			1st Set
B 본인	본인 이력(本人履歷)	○	○		5th Set
	거주력(居住歷)	○	○		5th Set
	직업생활(職業生活)	○	○		1st Set
	생활시간(生活時間)	○	○		3rd Set
	친구관계(友人關係)	○	○		4th Set
	취미·오락활동(趣味·娛樂)	○	○		4th Set
	생활의식(生活意識)	○	○		4th Set
	성격특징(性格特徵)	○	○		4th Set
C 배우자	배우자 이력(配偶者履歷)	○		○	5th Set
	배우자의 거주력(居住歷)	○		○	5th Set
	배우자의 직업생활(職業生活)	○		○	1st Set
	배우자의 생활시간(生活時間)	○		○	3rd Set

주: 1) △는 배우자를 제외한 본인에 대한 질문만을 포함.

먼저 가족과 관련된 질문은 가족구성, 주거, 가계, 가구 및 가전제품 목록, 부부관계, 부모, 양가 혹은 본인 부모와의 관계, 자녀에 관한 질문 등이 포함된다. 가족 구성에 관한 질문은 ① 가족의 수, ② 가족관계<sup>18)</sup> 및 가족의 성별, 나이, 학력, 동거 여부 ③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수(형제수·자매수) 및 출생 순위 ④ 가족변동 관련 질문(출산, 사망, 분가, 이혼, 별거 등) 등이다. 주거에 관한 질문은 ① 주택의 형태, ② 주택의 면적, ③ 주택의 소유권 및 부가 질문, ④ 부동산의 시가 등이다. 가계와 관련하여 ① 세금 관련 질문, ② 지난 1년간의 소득 관련 질문(노동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 ③ 지출 관련 질문, ④ 저축과 자산 관련 질문, ⑤ 신용카드 관련 질문, ⑥ 대출 관련 질문 등이다. 가구 및 가전제품 목록에 관한 질문은 25개의 세부항목을 조사하고 있으며 유배우 및 신혼 설문지의 경우 결혼 전, 신혼 살립, 결혼 후를 구분하여 세부 항목별 소유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부부관계에 관한 질문은 ① 결혼 관련 질문(혼인 상태, 결혼 연도, 결혼 비용 등), ② 가사 관련 질문(가사분담 여부, 가사분담 비중), ③ 육아 관련 질문(배우자의 육아 참여 여부, 참여 내용 등) 등이 포함된다. 부모(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서도 질문)에 대한 질문은 ① 부모와 동거 여부, ② 부모의 나이, ③ (사별했을 경우) 부모의 사망 연도, ④ 부모의 최종 학력, ⑤ 아버지의 직업, ⑥ 아버지 직장의 기업규모, ⑦ 아버지의 종사상지위, ⑧ 어머니의 취업 여부 및 취업기간, ⑨ 부모의 연간 수입 등이다. 부모와의 관계는 ① (유배우의 경우) 양가 부모 중 가까이 사는 경우 ②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 등이다. 자녀에 관한 질문은 ① 자녀 유무 및 자녀수, ② 출산 관련 질문(출산비용, 육아수당 수급 여부, 산전산후 휴가 여부 및 내용, 육아휴직제도 이용 여부, 직장복귀 후 아동보육 등), ③ 보육 관련 질문(보육기관 이용 여부, 보육비, 보육기간 등) 등이 포함된다.

본인에 대한 질문은 본인 이력, 거주력, 직업생활, 생활시간, 사회 및 가정생활, 성격 특성 등이 포함된다. 먼저 본인 이력은 ① 교육과 관련하여 중학교의 국공립·사립 여부, 고등학교 진학 여부 및 졸업·중퇴 여부, 고등학교의 국공립·사립 여부, 고등학교의 유형(普通科, 商業科, 工業科 등), 고등학교의 전공과목, 대학 진학 예비학교 진학 여부, 전문대(短大, 高專) 및 4년제 대학(大學) 진학 여부 및 졸업·중퇴 여부, 대학의 국공립·사립 여부, 대학의 전공과목, 부모로부터 학자금 의존 여부, 대학원 진학 및 졸업·중퇴 여부, 대학원의 국공립·사립 여부, 최종 학력, 최종 졸업 연월일, ② 전문

18) 가족관계 코드는 00 본인(아내), 01 남편, 02 첫째 자녀, 03 둘째 자녀, 04 셋째 자녀, 05 넷째 자녀, 06 다섯째 자녀, 07 본인의 부모, 08 남편의 부모, 09 본인의 조부모, 10 남편의 조부모, 11 본인의 형제자매, 12 남편의 형제자매, 13 다른 친척, 14 기타 등으로 구성된다. 07 이후의 코드는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이하의 조사 내용을 통해 분별하도록 되어 있다.

자격증 취득 여부 등이다. 거주력은 주로 ① 학교 소재 변동에 따라서 초·중학교 소재지(총 47개의 縣 및 해외) ② 중학교 졸업 시점의 거주지 이동 여부 및 사유 등이다. 직업생활은 ① 본인의 경제활동상태, ② 최종 학교 졸업 이후 총 경력기간, ③ 비경제활동 및 실업 판별 질문, ④ 현재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하여 직업, 산업, 기업규모, 종사상지위, 임금지급방식, 임금, 현직의 경력기간, 현 직장에서 일을 하는 이유, 현 직업의 선택 이유, 현 직업의 습속기간, 현직의 초직 여부 ⑤ 바로 이전에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하여 현직과 동일 질문, ⑥ 초직과 관련하여 현직과 동일 질문이 포함된다. 생활시간 배분은 여섯 가지 항목<sup>19)</sup>에 대해서 전체 24시간 중 몇 시간 몇 분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 사회 및 가정생활과 관련된 질문으로는 ① 친구 관계, ② 취미·오락활동, ③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훈련, ④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항목, ⑤ 생활 문제에 대한 의식 등이 포함된다. 남편에 대한 질문은 배우자의 이력, 거주력, 직업생활, 생활시간 등이 포함된다. 이 질문은 같은 항목의 본인 질문과 동일하게 포함되었다.

<표 4>는 JPSC의 직업생활과 관련된 변수들과 이에 해당하는 KLIPS의 변수들을 비교해서 소개하고 있다. 먼저 JPSC의 직업 변수를 살펴보면 유럽식의 계급(class) 범주와 국내의 종사상지위 범주를 반영한 독특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sup>20)</sup>. 이것은 일본에서 통상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SSM 직업코드<sup>21)</sup>와도 다른 것이다. 반면, KLIPS는 통계청의 표준직업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 KSCO) 3자리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통계청의 구분류코드(KSCO-92)가 국제노동기구의 국제표준직업분류(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 ISCO-88)

- 19) 생활시간 계획의 6가지 항목은 ① 통근·통학(通勤·通學), ② 일(仕事), ③ 면학(勉學), ④ 가사·육아(家事·育兒), ⑤ 취미·오락·교제활동(趣味·娛樂·交際など), ⑥ 기타(上記以外の睡眠, 食事, 入浴, 身の回りの用事など) 등이다.
- 20) 코드는 1 농림어업 자영 종사자(農林漁業, 自營者), 2 농림어업 가족 종사자(農林漁業, 家族従業者), 3 소자영업주(小規模 [9人以下] の商業·工業·サービス業, 自營者), 4 소자영업 가족 종사자(小規模 [9人以下] の商業·工業·サービス業, 家族従業者), 5 자유업 전문직 종사자(開業医, 辯護士, 著述業, 宗教家, 茶華道·舞踊の教授など), 6 관리직(管理職, 會社·團體の部長以上, 官公廳の科長以上など), 7 전문직(専門職, 病院勤務医師), 研究員, 大學助手以上, 裁判官など), 8 기술직(技術職, 技術者, プログラマー, 看護師, 營養士など), 9 교원(小·中·高校, 專修學校, 各種學校, 幼稚園, 保育園など), 10 사무직(事務職, 一般事務, 營業社員, 銀行員など), 11 기능·작업직(技能·作業職, 工具, 警察官, 電話交換手, ワープロ作業, 運轉士, 配達員, 職人など), 12 판매 및 서비스직(販賣サービス職, 店員, 外交員, 理·美容師, ウェイトレス, ホームヘルパーなど), 13 재택 종사자(自宅で賃仕事, 内職), 14 다른 직업, 15 무직 등이다.
- 21) 이것은 1955년부터 현재까지 10년을 주기로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인 일본의 대표적인 사회계층 조사자료인 '사회계층과 이동조사(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Survey: SSM)'의 직업분류 코드이다. 앞서 소개한 JGSS도 이 분류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 비교연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JPSC 분류는 ISCO의 첫 자리(1-digit) 코드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분류 수준에서의 비교가 가능하다. 동시에 JPSC의 직업 변수는 KLIPS의 종사상지위 변수 중 임금노동자의 구분(상용, 임시, 일용)이 되어 있지 않으나 임금노동자, 고용주 및 자영업자, 가족 종사자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연구자가 종사상지위 변수를 비교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JPSC에서 이 변수를 사용하면 된다.

다음으로 산업 변수는 두 조사 자료에 있어서 대분류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으나 JPSC가 덜 세부적으로 업종을 구분<sup>22)</sup>하고 있다. 특별히 서비스업의 구분

<표 4> JPSC와 KLIPS의 직업생활 관련 변수 비교\*

변수 설명	JPSC		KLIPS	비고
	본인	배우자		
직업	Q859	Q860	P05723	KLIPS 신직업코드 변수는 P05724임
산업	Q146	Q217	P05721	KLIPS 신산업코드 변수는 P05722임
종업원수	Q145	Q216	P05728	JPSC 범주형(KLIPS의 P05729)만 제공
회사창립시기	Q156	Q227		
고용 지위	Q147	Q218	P05732	JPSC 상근, 파트·아르바이트 등 구분
임금결정방식	Q148	Q219	P05762	JPSC 월급, 주급, 일급, 시급, 기타로 구분
임금	Q149~	Q220~	P05763~	임금결정방식에 따른 임금액
주당노동시간	Q152	Q223	P05751	JPSC 범주형 변수임
잔업시간	Q153	Q224	P05756	JPSC 범주형 변수임
서비스 잔업시간	Q154	Q225		JPSC 범주형 변수임
연근무일수	Q155	Q226	P05753	KLIPS 주당 평균 근무일수임.
취업월수(경력)	Q193	Q255	P05701~	KLIPS 취업연월일임.
유급휴가일수	Q167	Q238		KLIPS 유급휴가 유무 및 혜택 여부
취득휴가일수	Q168	Q239		
육아·개호휴업	Q880~	Q851~	P05054	JPSC 세부적, KLIPS 육아휴직 여부/혜택만
직업훈련	Q169~		P05131~	JPSC 유무, 내용, 참가일수, 업무시간 내 여부 등

\* 동일한 2002년 조사시점으로 JPSC는 10차 연도, KLIPS는 5차 연도 개인 자료임.

22) JPSC의 산업코드는 ① 농·임업, ② 어업·수산업, ③ 광업, ④ 건설업, ⑤ 제조업(출판, 인쇄 포함), ⑥ 도소매, 음식 및 숙박업, ⑦ 금융, 보험 및 부동산업, ⑧ 운수·통신업, ⑨ 전기, 가스, 수도 및 열공급업, ⑩ 서비스업, ⑪ 공무, ⑫ 기타. ⑬ 판매 불가 등이다.

이 상세하지 않다. 기업규모 변수와 관련해서 JPSC는 범주형으로만 제시되고 있으며 KLIPS는 종업원수를 정확하게 모를 경우에만 범주형 변수에 응답하도록 문항이 구성되어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두 조사 자료의 종업원수 범주는 세부적이거나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하게 구분되어 있다. 이어서 고용지위 변수의 경우 JPSC는 KLIPS 처럼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변수와 노동시간 형태(시간제, 전일제)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일본에서는 통상 정사원과 비정사원의 구분이 널리 쓰이고 있으며, 비정사원의 상당 부분은 파트타임 및 아르바이트 사원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노동시간 형태 변수로서 두 자료의 비교가 가능하다.

임금 변수는 두 조사 자료 모두 임금지급방식과 그에 따른 임금액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별히 KLIPS의 경우는 월평균 임금액수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노동시간과 관련해서 KLIPS는 노동시간 그 자체를 제공하고 있으나 JPSC는 범주형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이가 존재한다. 한편 JPSC는 서비스 잔업(サービス残業)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서비스 잔업은 임금이 지불되지 않고 진행되는 잔업을 의미하는데 일을 집에 가지고 가는 것을 의미하는 보자기 잔업(風呂敷残業)과 더불어 일본에서는 중요한 쟁점 사항 중의 하나이다. 이와 관련하여 KLIPS에서는 초과근무수당 여부(P05758)와 지급방법(P05759) 등을 알 수 있다. 한편, 휴가, 휴직 및 직업훈련과 관련해서는 JPSC가 매우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IV. JPSC의 이용방법

JPSC는 단지 학술적 목적인 경우에 한해서 대학이나 정부 혹은 공공 연구소에 종사하는 연구자 및 대학원생에게 공개되고 있다. JPSC의 자료 제공 절차는 일본의 대부분 공개 자료와 마찬가지로 매우 복잡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지며 판매 형식을 취하지 않고 아주 적은 발송비용(¥2,000의 우송료)만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JPSC의 자료 사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일본 가계경제연구소의 홈페이지(<http://www.kakeiken.or.jp>)에 접속하여 지원 양식을 다운로드한다. 자료 이용을 위한 지원양식은 다섯 가지의 문서로 구성되는데 ① JPSC 자료 이용을 위한 지원서, ② 연구 제안서, ③ 연구 개요, ④ 이력서, ⑤ 동의서, ⑥ 추천서 등이다. 먼저 지원서는 지원자의 이름, 서명, 소속 및 연구 제목, 연구비, 자료 이용기간(최대 1년 이내), 요구 자료 등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자료는 2004년 현재 1차 연도(1993) 자료에서부터

8차 연도(2000) 자료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연구 제안서는 A4 한 장 정도로 연구 제목, 연구 목적 및 JPSC 자료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질문 내용과 코드번호를 적도록 되어 있다. 연구 개요는 연구 계획과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학술적 활동(학술회의에 발표할 발표문의 제목, 학회명, 일시와 발표하고자 하는 학술지에 기고할 논문 제목, 학술지 명, 발행기관과 일시)을 적도록 되어 있다. 추천서는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지원서에 기재된 연구 제목, 기관, 공식 주소 그리고 추천의 이유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 모든 양식은 이-메일(e-mail)로는 받지 않고 오직 친필로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야 하며, 연구자가 복수일 경우 모든 연구자는 ④~⑥ 항목을 반드시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렇게 제출된 지원서는 ‘소비생활에 관한 패널조사연구회(消費生活に關するパネル調査研究會)’의 심사를 거쳐 지원이 결정되며, 지원자는 자료를 담은 CD롬과 관련 자료를 받게 된다. 자료의 제공 형식은 엑셀 형식(CSV)의 파일, SPSS 시스템 파일(SAV), 그리고 텍스트 형식 파일 등 세 종류이다. 이와 함께 가계경제연구소는 설문지와 엑셀 형식의 코드북을 제공하고 있다.

## V. JPSC의 방법론적 시사점 및 제한점

JPSC 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패널조사에 대한 방법론적 시사점은 응답자 및 조사원 관리가 응답률을 높이는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JPSC의 안정적인 응답률의 유지는 상당 부분 응답자 및 조사원 관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JPSC는 조사 성공시 5,000엔의 현금 지급 외에도 1,600엔 상당의 조사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JPSC 관련 보도나 신문기사 내용을 담은 소식지를 응답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등 응답자 관리에 조사 예산의 상당 부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응답자 관리의 다른 패널조사에 비해서 안정적인 패널 응답률 유지에 기여를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sup>23)</sup>. 또한 조사원 관리와 관련, 안정적인 응답률 확보를 위해 용역 의뢰한 조사업체와의 신뢰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으며 이에 따라 조사원의 대다수가 조사 기간 내내 참여한 장기근속자들로 구성되었다. 이와 관련, 최근 패널조사의 표본이탈 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응답자들의 인구학적·사회경제적 특성보다는 면접시

23) 물론 이러한 해석은 다소 제한적일 필요가 있다. 조사 예산은 표본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JPSC는 상대적으로 표본수가 적은 데 비해서 일반적인 패널조사는 표본수가 5,000~10,000 명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JPSC와 같은 응답자 관리예산 책정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간, 조사방법, 응답자에 대한 사례금, 동일 조사원의 조사 여부 등 실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표본이탈 요인을 밝히려고 시도하고 있다(이상호, 2003; Hill and Willis, 2001; Zabel, 1998).

JPSC의 제한점은 자료의 대표성 문제와 조사 기법 등으로 요약된다. 첫 번째로 자료의 대표성 문제는 표본수의 문제, 응답률의 문제, 그리고 가중치의 문제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표본수의 문제는 JPSC의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볼 수 있다. 패널자료의 장점은 횡단조사 자료와 시계열 자료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이들 자료에서는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특히 미시적인 단위의 동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표본수가 비교적 클수록 분석 대상이 증가하게 된다. 실업, 취업, 졸업, 이혼, 사망 등 동태분석의 중요한 연구 대상들은 대개 소수의 응답자만이 경험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들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수준의 표본수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차례에 걸친 JPSC의 표본 추가는 표본탈락을 보정하는 차원 뿐만 아니라 적정수의 표본수를 유지하기 위한 교육책으로 보여진다. 이어서 표본조사 자료의 결과가 대표성을 가지려면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한데 JPSC는 가중치를 개발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다. 물론 가중치를 통해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가중치는 자료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유력한 도구임에는 틀림없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내외 패널자료들은 가중치를 제시하고 있다. KLIPS의 경우도 1999년과 2003년 등 두 차례에 걸쳐 가중치를 개발한 바 있다(강석훈, 2003; 김기현, 2003). JPSC는 표본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가중치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는데 가계경제연구소는 예산상의 제약을 이유로 아직까지 가중치를 개발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두 번째로 조사 기법과 관련하여 JPSC가 유치조사법을 사용한 데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우선, 첫 조사의 응답률이 결과적으로 매우 낮은 중요한 이유는 조사 기법의 선택이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어서 질문에 대한 응답이 조사원의 통제하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면접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못된 응답과 응답에 대한 누락이 많다는 제약이 존재한다. 가계경제연구소는 전자와 관련하여 패널조사의 장점을 활용하여 잘못된 응답을 전년도 응답 결과를 토대로 전화 확인 작업을 통해 추가적으로 보정하고 있으나 후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곧 누락된 응답 항목에 대한 처리는 전적으로 자료를 분석하는 연구자에게 맡겨 놓은 상태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JPSC는 장기간의 패널자료인 데다 그동안 비교적 높은 표본유지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일반 연구자에 대한 자료 공개 원칙을 처음부터 고수

해 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국내의 패널자료와 조사항목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한일간의 비교 연구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강석훈. 「KLIPS의 가중치 부여방안 연구」. 『한국노동패널연구』. Working Paper Series 2003-4, (2003).
- 금재호a. 「고용관련 패널조사의 의의와 필요성」. 『한국노동패널연구』. Working Paper Series 97-01, (1998).
- 금재호b. 「패널조사의 응답자 관리」. 『한국노동패널연구』. Working Paper Series 97-05, (1998).
- 김기현. 「한국노동패널조사의 2003년 가중치」. 『매월노동동향』. 통권 제25호, 한국노동연구원, (2003) pp. 61-73.
- 방하남·황수경·김기현·김지경·박시내·이상호. 『한국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IV)』. 한국노동연구원, (2002).
- 신동균. 「미국 패널데이터의 현황과 시사점: PSID, NLSY, KHPS, KLIPS를 중심으로」. 『한국노동패널연구』. Working Paper Series 97-02, (1998).
- 이상호. 「청년패널의 표본이탈 요인분석」. 『제2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움 자료집』. (2003), pp. 301-323.
- 家計經濟研究所 篇, 『消費生活に關するパネル調査(第1年度)』. 大歳省印刷局, (1994).
- \_\_\_\_\_ 篇, 『消費生活に關するパネル調査(第2年度)』. 大歳省印刷局, (1995).
- \_\_\_\_\_ 篇, 『消費生活に關するパネル調査(第3年度)』. 大歳省印刷局, (1996).
- \_\_\_\_\_ 篇, 『現代女性の暮らしと働き方-消費生活に關するパネル調査(第4年度)』. 大歳省印刷局, (1997).
- \_\_\_\_\_ 篇, 『現代女性の暮らしと働き方-消費生活に關するパネル調査(第5年度)』. 大歳省印刷局, (1998).
- \_\_\_\_\_ 篇, 『現代女性の暮らしと働き方-消費生活に關するパネル調査(第6年度)』. 大歳省印刷局, (1999).
- \_\_\_\_\_ 篇, 『現代女性の暮らしと働き方-消費生活に關するパネル調査(第7年度)』. 大歳

省印刷局, (2000).

\_\_\_\_\_ 篇, 『現代女性の生活意識と不安-消費生活に関するパネル調査(第8年度)』. 財務省印刷局, (2001).

\_\_\_\_\_ 篇, 『停滞する經濟, 變動する生活-消費生活に関するパネル調査(第9年度)』. 財務省印刷局, (2002).

\_\_\_\_\_ 篇, 『家計・任事・暮らしと女性の現在-消費生活に関するパネル調査(第10年度)』. 國立印刷局, (2003).

久木元眞吾・村上あかね, 「第2回 パネル調査・カソファレソス 報告」. 『季刊 家計經濟研究』通卷 第58号, (2003) pp. 64-68.

佐藤博樹・石田浩・池田謙一 編, 『社會調査の公開データ 2次分析への招待』. 東京大學出版會, (2000).

永井曉子・久木元眞吾・溝口由己, 「パネル調査・カソファレソスリポート」. 『季刊 家計經濟研究』通卷 第54号, (2002), pp. 70-81.

松田光司, 「調査データの復元と二次分析 Hunterの命題の検証」. 『理論と方法』 17권 1호, (2002), pp. 23-40.

村上あかね, 「なぜ脱落したのか-消費生活に関するパネル調査における脱落理由の分析」. 家計經濟研究所 篇, 『家計・任事・暮らしと女性の現在-消費生活に関するパネル調査(第10年度)』. 國立印刷局, (2003), pp. 115-122.

Fahy, T. W. *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s of Labor Market Experience: An Annotated Bibliography of Research*. Ohio State University, (1995).

Bourque, L. B. &, E. P. Fielder. *How to Conduct Self-Administered and Mail Surveys*. London : Sage, (1995).

Babbie, E. R. *The Practice of Social Research*. Wardsworth Publishing, (2001). 고성호 외 역, 『사회조사방법론』, 그린, (2002).

Hill, D. H. & R. J. Willis. “Reducing Panel Attrition: A Search for Effective Policy Instrument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36 (3), (2001), pp. 416-438.

Zabel, J. E. “An Analysis of Attrition in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and the 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with an Application to a Model of Labor Market Behavior”.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33 (2), (1998), pp. 479-506.

## **The Japanese Panel Survey on Consumers(JPSC): Design and Methodology**

Ki Hun Kim

This Study reviews panel data design, sampling method, data collecting procedures, questionnaire of the Japanese Panel Survey on Consumers (JPSC). the JPSC was collected by the Institute for Research on Household Economics and, is a longitudinal survey on Japanese young women regarding their consumer life and economic activities.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the JPSC to Korean researchers for the extension of comparative studies. Also, this paper examines the design and methodology of the JPSC to extract methodological implications for Korean panel surveys.

Key Words : Panel Survey, Secondary Analysis, Response Rates, Self-Report Method